WBC 개막 6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개막전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경기를 앞두고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인비 세계 9위 도약

LPGA 랭킹

'골프 여제' 박인비(KB금융그룹)가 여자골프 세계 랭킹 9위로 도약했다.

5일 싱가포르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위민스 챔피언스를 제패한 박인비는 6일 발표된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 12위보다 3계단 오른 9위에 자리했다. 박인비는 2015년 11월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이후 16개월 만에 LPGA 투어 정상에 복귀했다.

2015년 10월까지 세계 랭킹 1위를 지켰던 박인비는 지난해 8월 리우 올림픽 우승 이후 부상으로 투어 활동을 중단, 12월 5일자 순위에서 10위까지 밀렸다. 이후 12월 19일자 순위에서 11위로 떨어졌다가 이번 우승으로 약 3개월 만에 10위 안쪽으로 복귀했다.

박인비는 6일 새벽 귀국했으며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다음 출전 대회는 16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개막하는 LPGA 투어 파운더스컵이다.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2015년 10월부터 변함없이 1위 자리를 지켰고 에리야 쭈타누간(태국)이 2위다. 펑산산(중국)이 3위로 한 계단 오르면서 전인지가 4위로 순위가 밀렸다.

LPGA 투어 공식 데뷔전인 HSBC 챔피언스에서 단독 3위에 오른 '슈퍼루키' 박성현(하나금융그룹)은 11위를 유지했다. 일본여자프로골프 투어 2017시즌 개막전인 다이킨 오키드 레이디스에서 우승한 안선주는 33위에서 27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연합뉴스

이별 앞둔 동기 "올해 호흡 잘 맞춰보자"

KIA 포수 이홍구-좌완 손동욱

전역 손동욱·입대 이홍구
"단국대 배터리 기억 살려
팀 이끄는 주축선수 되자"

'단국대 배터리' 출신의 KIA 타이거즈 포수 이홍구(왼쪽)와 투수 손동욱이 손을 맞잡고 올 시즌 각오를 다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돌아온 이와 떠나갈 이가 함께 웃고 싶은 2017시즌이다.

KIA 타이거즈의 좌완 손동욱과 포수 이홍구는 눈빛만으로 통하던 '단국대 배터리'였다. 단국대를 대표하던 두 사람은 2013 신인 드래프트에서 나란히 2차 1번과 2번 지명을 받으면서 함께 KIA 유니폼을 입었다.

프로의 꿈을 이룬 두 동기는 누구보다 서로의 지명을 축하해주면서, 팀을 이끄는 주축 선수가 되자고 다짐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바람과 달리 KIA에서 함께 웃은 날은 많지 않았다.

프로 첫해 두 사람은 1군 무대를 경험했지만 성적은 신통치 않았다. 설상가상 손동욱은 2013시즌이 끝난 뒤 팔꿈치 수술을 했다. 이후 군 복무를 위해 떠났던 그는 지난 시즌 중반 팀으로 돌아왔다. 프로의 높은 벽에 막혀 고전하던 이홍구는 2015년 '한방'으로 어필을 했다. 12개의 홈런포를 날리며 백용환과 타이거즈 첫 '포수 동반 10홈런'을 기록한 그는 지난 시즌에도 안방의 한 축을 담당했지만, 와일드카드 결정전 엔트리에서 제외되면서 아쉽게 시즌을 마감했다.

올 시즌은 두 사람에게 특별하다. 손동욱에게는 예비역으로 새로 출발하는 첫 시즌. 이홍구에게는 입대 전 마지막 시즌이다.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난 시즌이자 또 다른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시즌이기도 하다.

이홍구가 갈고 닦은 무기는 '마음'이다. 이번 캠프에서 타격 때 왼 무릎을 더 많이 쓰고,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공략하려는 것을 빼고는 큰 변화를 준 것은 없다. 하지만 '마음'이 많이 달라졌다. 조급했던 마음을 버리고 후회 없이 자신 있게 시즌을 준비하고 보내겠다는 각오다.

이홍구는 "이번 캠프가 가장 만족스럽다. 공격이나 기술적인 것 이런 걸 떠나서 마음가짐이나 생각하는 것이 만족스럽다. 후회 없이 즐기자는 그런 마음으로 왔고 그렇게 해야 한다"며 "막상 시즌 들어가면 힘든 시기도 오고,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편하게 자신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돌아온 동기와 호흡을 맞추고 싶다는 바람도 밝혔다.

이홍구는 "(손동욱의) 스타일도 잘 알고, 마음도 아니까 함께 경기를 하면 편하다. 둘이 꼭 함께하고 싶다. 나부터 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며 "아직 개막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안 다치고 시즌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다. 수비도 방망이도 조급씩 천천히 시즌에 맞추겠다. 캠프 잘 마무리하고 기분 좋게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예비역' 신분으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손동욱도 이홍구와 다시 호흡을 맞출 날을 그리고 있다.

이홍구는 듬직한 배터리자 고마운 동기다. 그는 KIA의 지명을 받던 날 "원래 야구를 못했다. 대학에 와서 정말 열심히 했고 홍구가 있어서 이 정도까지 큰 것 같다"며 이홍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었다.

손동욱은 "대학 시절에 마운드에서 편하게 해주고 상대 빠른 선수들이 마음대로 뛰지 못하도록 잘 잡아주기도 했다. 나를 잘 아는 친구라서 배터리를 하면 마음이 편하다"며 "시즌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지는 것도 있는데 천천히 하려 한다.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준비 잘하겠다. 특히 변화구 제구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 또 좌타자 상대하는 공부도 많이 하면서 더 좋은 모습 보이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캠프, 시즌 모드로 전환

KIA 타이거즈가 '시즌 엿보기'로 캠프 분위기를 전환했다.

KIA는 지난 4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만남을 끝으로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연습경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후 일정은 귀국 날인 10일까지 휴식일 없이 8일턴으로 막판 스퍼트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정에 변화가 생겼다. 선수단은 6일 '깜짝 휴식'을 선물 받았다. 지난 1일 이후 4일 훈련 일정을 소화했던 선수단은 6일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의 마지막 휴식날을 보내며 피로를 풀었다.

앞서 5일 KIA 선수들은 이번 캠프의 처음이자 마지막 야간 훈련을 진행했다.

KIA의 스프링캠프 훈련 일정에 야간훈련이 있기는 하다. 공식적인 훈련 스케줄이 끝난 뒤 오후 7시 정도부터 숙소 웨이트장과 축구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인 훈련을 하는 방식이다.

투·타의 선수들이 함께 공식 일정으로 야간 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훈련 장소도 축구장이 아닌 캠프지인 킨 구장이었다.

이날 선수들은 오후 4시 킨구장에 집을 풀었다. 평소에는 훈련이 끝나고 숙소로 향하는 시간. 늦은 오후 시작된 훈련은 해가 지고 불이 밝혀진 뒤에도 계속됐다.

시즌 개막이 다가오면서 야간 경기의 감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훈련 스케줄이었다. 조명탑 불을 켜고 시즌 분위기를 만끽한 선수들은 6일에는 휴식으로 컨디션을 조절했다.

경기 감각을 살리고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성큼 다가온 시즌 개막을 준비한 '호랑이 군단'이다. /김여울기자 wool@

나성승 네덜란드주니어 배드민턴 우승

나성승(19·전대사대부고 3년·사진)이 한껏 물오른 스매싱을 선보이고 있다.

나성승은 지난 5일까지 네덜란드 하를렘 배드민턴홀 두인베르크에서 열린 '2017 네덜란드주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 출전, 금빛 스매싱으로 혼합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성아영(강원 유봉여고 3년)과 짝을 이뤄 유노수케 쿠보타와 린 이와나가의 일본팀을 2-1로 꺾고 시상대 맨 위에 올라섰다.

나성승은 앞서 열린 준결승에서 말레이시아를 2-0으로 제치고 결승에 올라 첫 세트를 먼저 내줬지만 차분한 경기 운영을 펼치며 역전 우승을 이끌어냈다.

나성승은 지난해 열린 '제 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팀 창단(1990년 4월) 이래 처음으로 남고부 개인복식 금메달을 획득하며 체육계 주목을 받고 있다.

나성승은 바로 독일로 건너가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2017 독일주니어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출전, 메달을 노린다. 그는 지난해 대회에서 3위(남자복식, 혼합복식)를 차지한 바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제11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 중학교 야구 개막

KIA타이거즈가 광주·전남·북 지역 야구 유망주 발굴과 육성을 위해 '제11회 KIA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를 개최한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6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리며, 광주(동성중, 무등중, 진흥중, 충장중)·전남(여수중, 이수중, 화순중, 세지중, 진월중)·전북(이평중) 지역 10개팀이 참가한다.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승팀과 2, 3위팀에게는 트로피와 상장이 수여된다. 참가하는 전체 팀에게는 야구장비가 증정된다. 최우수선수상 등 개인상 10개 부문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다. 개인상 수상자에게는 야구용품 등 상품을 준다.

한편 호남지역 야구 유망주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된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야구대회는 지난해까지 가을에 개최됐지만, 올해부터 봄철로 대회 시기를 옮겨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대회로 자리하게 됐다. 오는 31일부터는 제13회 KIA 타이거즈 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대회가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

"류현진, 8~9일 시범경기 등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부활을 준비 중인 왼손 투수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곧 실전 마운드에 오를 전망이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는 6일(이하 한국시간)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의 말을 인용해 "류현진이 오는 8일 또는 9일 시범경기에 등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저스는 8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홈경기, 9일에는 밀워키 브루어스와 원정경기를 치른다.

지난 2년 동안 어깨와 팔꿈치 수술을 받은 류현진은 다저스의 선발 로테이션에 다시 합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스프링캠프에서는 불펜 투구와 세 차례 라이브피칭을 성공적으로 소화하고 실전 복귀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로버츠 감독은 지난 2일 샌프란시스코와 경기에서 류현진의 선발 등판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류현진이 허벅지 근육에 가벼운 이상을 느껴 불펜 투구로 대신했다. 이후 류현진은 지난 5일 실시한 세 번째 라이브피칭에서는 2이닝을 던진 뒤 "전반적으로 좋았다"며 만족해했다.

특히 "특히 커맨드(command)가 내가 바란 대로 오늘이 제일 좋았다"면서 제구는 물론 공을 원하는 곳에 꾸준히 던질 수 있었던 데 의미를 뒀다.

류현진이 만약 8일 등판한다면 샌프란시스코의 스프링캠프 초청선수 자격으로 메이저리그 진입에 도전하는 황재균과 맞대결이 이뤄질 지도 관심이다.

/연합뉴스